

대학박물관협회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생각하며*

- 50회 학술발표회에 붙여 -

임 효 택 **

안녕하십니까 봄의 향기가 가득한 호반의 도시 춘천의 강원대학교 캠퍼스에서 우리 협회의 제50회 춘계 학술발표회와 제10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를 가지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저는 배기동, 우종윤 두분 회장님의 권유에 못 이겨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 체질에 맞지도 않고 또 능력도 부족한 사람으로 기조강연 요청을 받고 몇 번이나 고사를 하였으나 원고 없이 평소 생각한 바를 간단히 말해 달라는 회장님의 부탁 말씀을 어기지 못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대학박물관협회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생각하며 - 50회 학술발표회에 붙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협회 학술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조금 말씀 드려 책임을 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저의 우리 학회 학술활동의 활성화 문제에 관한 소견은 실은 여러분도 평소에 느끼고 다 아시는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의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지난 4년간 제가 협회장직을 맡아 수행해온 내용들에 대하여 간단히 짚어본 후 학술활동의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중요 현안으로는

- 첫째. 한국박물관협회와 합치는 문제
- 둘째. 협회지 '고문화'를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하는 문제
- 셋째. 대교협 대학평가항목에 대학박물관을 추가시키는 문제
- 넷째. 협회의 사단법인등록 문제 등이었습니다.

한국박물관협회와 합치는 문제는 작년 4월 매듭을 지었으나 상호이해와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하는 문제와 합동학술활동이나 학회지 발간문제 등을 어떻게 해나가야 좋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협회 임원진이 잘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합동 학술활동이나 학회지 발간문제는 경험이 많은 우리 쪽에서 잘 리더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회지 '고문화'를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하는 문제는 당시 운영위원 여러분과 간사였던 동의대 박물관 조현복 선생님의 노력으로 등재후보가 된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계속 유지하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50회 춘계 학술발표회 기조 강연문(2004. 4. 16)

** 동의대학교 박물관장

는 문제는 현 운영위원과 간사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협회의 학술지 '고문화'에 대한 상대평가 결과를 조금 말씀드려 앞으로 더 좋은 권위 있는 학술지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본인이 능력은 없습니다만 영남고고학회의 회장직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고문화'와 '영남고고학보'를 동시에 등재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학술지가 모두 등재 후보로 되었지만 본인으로서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은 힘을 기울인 '고문화'보다 '영남고고학보'가 더 좋은 점수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아마 학회지의 인지도문제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영남고고학회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에 학회지 33집을 내고 있고 우리 협회는 창립 43주년에 학회지 62집을 발간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고고학보는 고고학 한 분야의 전문잡지로 꾸준히 성장하여 연구자 사이에 중요한 논문집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고, 고문화는 고고·역사·미술·민속·박물관학·기타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내용으로 구성되는 학술잡지이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그 인지도나 격에 있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화'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부족한 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인지도·수준 등을 한층 더 높인다면 다양성을 가진 우리 협회의 학술지가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더욱 권위 있는 학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대교협 대학평가항목에 박물관을 추가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특히 사립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실감하는 문제입니다만 대교협의 대학평가 제도가 마련된 후 그 결과가 교육부의 지원 또는 학생들의 입학지원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당국은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에는 많은 지원을 하나 그렇지 않은 곳에는 거의 눈을 돌리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학교 도서관과 박물관을 비교해 보면 그 지원 내용에 있어서 종전에 비하여 하늘과 땅차이로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교협평가에 박물관이 평가 항목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1년 11월에는 고려대학교에서 협회 4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움으로 "문화의 세기와 대학박물관"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한 특별심포지움도 가지는 등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에는 우리대학박물관도 '대학시설'이라는 평가항목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대학 박물관의 발전을 위하여 다소 나아진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과 같은 평가를 받는 기관이 되려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 운영위원 여러분은 물론 각 학교 관장님, 학예원들께서도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학교 내에서 박물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협회를 문광부에 사단법인체로 등록하는 문제는 그 동안 사단법인체가 됨으로서 발생하는 경비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하였던 것임을 회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동안 사단법인 추진은 이를 위한 별도 간사인 건국대학교 박물관의 학예과장이신 채현석 간사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제반서류를 갖추어 문광부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무난히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알았으나 의외의 복병을 만나 완결을 짓지 못하고 차기 회장님께 짐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일도 협회로서는 올해가 아이콧 행사 등 매우 바쁜 해가 되겠지만 오히려 적기로 생각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계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4년간 제가 회장직을 맡은 후의 협회 주요 현안들의 진척결과를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지만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회 학술활동의 활성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평소 생각한 바 두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심도있는 학술발표회 개최 내지 특화 및 워크샵 개최문제

둘째. 학술지 고문화의 지가유지 및 향상책

셋째. 연합전시회 활성화 문제 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춘추계로 2번 열고 있는 학술발표회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의 학술발표회는 1967년 5월 14일 전남대에서 제1회 발표회를 가진 이래 년1~2회를 개최하여 2004년 4월 16일 오늘로서 제5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학술발표회 개최의 역사가 50회나 되었다는 것은 여타 권위 있는 학술발표회와 비교했을 때도 그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춘계 발표회는 일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학예원 여러분의 뜻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느 학술발표회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선 연구자 중심의 것으로 우리 협회 학술활동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계발표회 역시 학술적인 이슈 또는 개최지역의 문화 등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주제를 가진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음은 우리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 간 더 좋은 학술발표회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개개 발표에 따른 토론과 질문을 활성화하여 발표자·참가자 모두 긴장감을 가진 열띤 발표회로 바꾸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나 시간상의 제약 등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학술발표회가 관계 연구자 여러분에게 회자될 수 있는 학술발표회가 되기 위해서는 토론이 있는 활발한 발표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학술발표의 주제선정·발표자·토론자선정 등 일체의 업무를 운영위원회 산하 학술발표를 위한 전담 소위원회를 두어서 수행하든지, 아니면 춘계 발표회를

주관하는 학예원에게 일임하든지 하여 학술발표회 준비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본다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학술발표회와 더불어 협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학술활동을 위하여 춘계 학술발표회는 순수학술발표회로, 추계학술발표회는 위커샵 같은 활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일반 학회도 아닌 우리로서는 느전한 학술발표회 2회를 갖기보다는 심도 있는 춘계발표회 1회와 앞서 말한 위커샵 같은 추계활동으로 학술활동의 방향을 약간 수정해 보면 협회의 특색도 살리고 학술발표회 수준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장님과 운영위원 그리고 학예원 회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문화 학술지의 지가유지 및 향상 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학술지 고문화는 1962년 5월 창간하여 2003년 12월까지 42년간 총 62집을 발간한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술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의 학술지 '고문화'는 다양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장점이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선 고고·역사·미술·민속·박물관학·기타 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좋은 논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그 동안 학예원 여러분의 학술연구 진작 책으로 한해 한 명에 대하여 연구비 150만원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인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여 약간의 성과를 올리는 하였으나 1년에 한 명에게만 지원되고 또 지원금도 150만원밖에 되지 않아 그 지원 수준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외부에서 연구비를 따오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지원자와 지원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비 발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지가 비록 등재후보지가 되었다고는 하나 투고 논문의 수가 일시에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고 논문의 수도 늘리고 또 지가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하여 우수 논문시상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올해의 우수논문 상"과 같은 수상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가 향상 책을 도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연합전시회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협회 최초의 연합전시는 1963년 4월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개최하였으며 1997년 충북대 박물관의 연합전시를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한양대 박물관에서 "한반도 토기 문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합전시회를 개최하여 회원교 여러분의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니다.

그 동안 연합전시회가 중단된 것은 회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발굴유물의 경우 국립 박물관과의 유물이관절차에 따른 번거로움, 유물이동에 따른 위험과 보험문제와 같은 경비문제, 좋은 주제를 선정하는 문제 등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것임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연합전시회와 같은 학술활동은 우리협회가 아니고서는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우리만의 독특한 행사로 자랑할 만한 학술행사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계속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하기에는 테마선정문제나 추진해 나가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격년제로 시행하고 또 추계학술발표회도 앞서 말한바와 같이 순수 학술발표는 춘계 1회만 하고 줄여 가을 행사는 워크샵이나 연합전시회 쪽으로 힘을 기울인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합전시회 행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 결정되면 테마는 연구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또 관련 논문도 수록하는 수준 높은 도록도 발간해야 연합 전시회 개최에 따른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내용도 없는 저의 생각을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협회 학술활동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소견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